

대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등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창 권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원	Editor	Donald C. 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61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8일 금요일	Issue No.	1761
		Date	Sept. 19, 1969: Fri.

파리 화평 회담 정돈의 책임은 북비에트남에. 닉슨대통령 쿠련서 연설

(뉴욕국립본부 9월18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8일 국련총회에서 30분에 걸쳐 연설하였다. 이 연설중에서 대통령은 파리 화평 회담의 정돈은 전면적으로 북비에트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북비에트남을 진심으로 교섭에 응하도록 각국의 외교면에서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회장에는 구름미코 소련 의상을 위시하여 약 80개국의 의상이 출석하였는데, 큐바, 알바니아 대표는 닉슨 연설을 듣지 도 안코 회장하였다. 대통령의 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린 세계를 목표로 전진하자. 열린 문, 열린 마음, 열린 정신의 세계를 목적으로
- 비에트남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유일한 기본적인 목표는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남비에트남의 자결을 보증하는데 있다. 파리 회담의 정돈은 상대측이 결과를 이미 결정하고 있고, 남비에트남의 자결의 권리를 부정하는 의론외의 태도는 전혀 갖지 않으려는 점에 있다. 평화의 이름에 있어서 나는 국련가맹 126개국의 제대표에 이전쟁을 닦내는 교섭에 북비에트남이 진심으로 나오도록, 외교면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설득하기를 요청한다.
- 미. 소 전략병기제한 교섭은 소련측으로부터의 회담이 쉽기 때문에, 미국이 교섭개시를 제안한 기일이 지나고 말았는데, 우리는 교섭에 응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중동정세에 있어서는 안정된 평화의 희망에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해결의 최저조건으로서 국련 휴전규정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각국이 안전하고 승인된 경제내에서 서있는 주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중동의 무기공급의 제한협정이 상항의 안정에 이익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에 이종류의 교섭에 응할 의도를 시사하였는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다음의 5항목에 대해서는 참가가맹국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 국제공토의 안전보장 (2) 국련지원병제도의 장려 (3) 경제발전 인구제한의 조장
 - (4) 환경보호대책 (5) 우주의 탐험 (6) 비행기의 강제바 람은 범인이 피난소의 제공을 받고 있는 한은 닦나지 않을 것이다. 국련은 국제비행기의 박탈에 대한 국제적인 처벌협 정을 우선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오기나와 반환 교섭

(동경 9월 18일 밤 공동) 오기나외방관교섭은 11월 19일부터 3일간, 왕싱톤에서 열리는 사드, 닉슨미대통령과의 수뇌회담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지어질 예정인데, 일본외무성이 18일 명백히 한바에 의하면, 이번의 아이지.라자스 회담에서 다음의 결론을 가져왔다.
(제2면에 계속)



(제1편으로부터 계속)

(1) 핵의 취급 (2) 반환후의 오기나와 미군기지로부터의 비에트남에의 출격 의 두점이다. 이 중 핵은 문제의 성격으로보아 본래 수녀간에서 결론을 낼것이라고 다음으로 미루고, 비에트남에의 출격문제는, 반환시에 다시 협의하면조라는 일본측의 주장과 반환후도 출격을 인정할것인가 인정하지안할것인가가 확실치안하면 11월의 시점에서 오기나와반환에대해서 미국내를 설득시키는데 곤란하다는 미측의 태도가 명백하고 급후의 검토에 남긴것이다. 그러나 의무성은 이번의 두차례에걸친 아이지.라자스회담에서 "회담을 자주함으로써 미측에 문제해결의 기분이 농후하게 되어간다" 라고 해결에의 자신을 가지고있으며, 될수있으면 11월의 사.도.수상의 방미까지에 비에트남에의 출격문제를 결정하고, 수녀회담에서의 오기나와 반환을 취급하도록할 생각이다. 의무성에의하면, 이번의 아이지.라자스회담에서 논의 집중한것은, 반환후의 오기나와미군기지로부터의 발진을 인정할것인가 아닌가의 점이었다. 이것은 핵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문제가 되어 있다. "자유발전"에대해서 한국반도등 일본의 안전에 직접영향을 끼치는 지역에서의 발진의 점은 공동성명에서의 말을 포함하여 양자의 의견이 일치되고, 비에트남에의 출격문제가 "자유발전"의 남은 유일의 쟁점이라고보고있다. 이대문에 24일, 스나이다오기나와회담당주일미공사의 귀임을 기다려서 개시하는 동공사와 도쿄의무성미국국장과의 사무절중은, 비에트남출격문제가 최대의 점이 될것이다. 다만 이문제의 취급은 양국이다 국내대책과 포함된 고도의 정치적판단이 필요하며, 각각 최고수뇌의 지시를 기다리며 절충하여갈것이다.

다음은 화성착륙 - 1986년이 목표

(워싱턴 9월18일발, 공동) 백악관은 17일 니 슌대통령하에 제출된 달착륙에이여 미국의 다음의 우주개발계획에대한 답신안을 공포하였다. 이답신안은 애구뉴부대통령을 의장으로서한 자문회가 2월이래 검토중이었는데, 닉슨대통령이 답신한 3안중 어느것을 택할것인가는 이주일간에 결정된다. 3안은 모두 화성착륙을 목표로하고있는데, 애구뉴부대통령이 이답신에 첨부한 서한중에 1986년을 목표년도로하는 제2안을 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아, 미국이 1986년의 화성착륙을 목표로 차기우주계획에 나설것은 거의 결정적이다.

국련총회 선거에서 여성의장 선출

(뉴욕국련본부 에이피 17일발) 제24회국련총회는 16일오후 126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개막, 국련사상 두번째의 부인의장으로서 리베리야의 의무차관 앤지.부웃스여사(41세)를 선출하였다. 17일에는 17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번총회에는 군축, 중동분쟁을위시하여, 104항목이라는 국련개시 이래 처음으로 다수의 의안이 제출되고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17일오후부터 이를 검토할예정,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문제를 들도록 요청하고있는데, 영국은 이것이 내정문제라고 국련에서의 심의를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중동문제로 미.소 회담 재개

(워싱턴 9월17일발, 에이피) 국부성대변인 17일발표에의하면, 미.소양국은 18일 뉴욕에서 중동 위기문제에서의 회담을 재개할것에 동의하였다. 뉴욕회담은 시스코국부차관보와 도부투니주미 소련대사사이에 열린다.

사회보장금액의 증액을 워싱턴서 요청

(워싱턴 9월17일발,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사회보장법의 운전지불액을 오는 4월1일부터 10% 증액하도록 래주국회에 요청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서 개헌안을 가결 통과

(서울 9월15일발, 공동) 한국여당의 민주공화당은 14일새벽, 국회본회의장의 "점령"을 계속 하고있는 반대파를 물리치고, 박대통령의 3선의 길을여는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가결하였다. 여당대변인에의하면, 개헌안의 채택은 의사당의 별관에서 거행되었고, 122대0(필요최저수 114표)로 가결되었다. 반대파의 측근들은 개헌저지를위해,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점령하고있었다. 이채결은 반대파와 신문기자 한사람도 몰르는동안에 거행되었다. 채결에 필요토한 시간은 단지 5분간이었다고 동대변인은 말하였다. 채결을 물리고있는 반대파의 의원수명은 급히 별관으로 쫓아가, 입구에 서서있는 사복형사들넘어 "반역자들이야 문을열러라" 라고 소리쳤는데, 이미 늦은 일이었다.

다음은 국민투표

개헌안에의하면, 대통령은 2기(1기4년)이상은 연속취임할수없는 헌정규정을 3기(12년간)까지 취임할수있도록 수정하고있다. 동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되는데, 여당은 10월10일경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간행가결은 격화되고있는 학생의 반대시위를 더 심하게할 우려가있다.

한국의 호열자 각지에 퍼져

(동경 9월15일발, 공동) 15일의 서울방송에의하면 한국서부의 군산지구에발생한 호열자는 기온 저하에따라 발생우는 감소하고있는데, 지리적으로는 확대하고, 부산외에 대전, 목포, 전주, 공주의 각도시에 새로운 환자를 발생한외 거제도에도 흡사한 환자가 새로 발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5일정오현재의 전국호열자 발생집계에의하면, 총발생환자수는 685명으로, 그중 56명이 사망하였다.

한국남서부에 독우 사망자 행방불명 다수

(동경 9월15일발, 공동) 15일의 서울방송에의하면, 한국남서부지방은 14일부터 15일아침에 걸쳐서 집중독우가 와, 동일정오현재 사망자 106명, 행방불명 52명을세우고있다. 또 동지구 전역에걸친 철도와 통신망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평균 200미터로부터 300미터 (마산지방은 513미터, 여수지방은 200 내지 320미터, 제주도는 117미터)의 폭우로, 가옥의 상실등에의해 3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있다.

한국서 해안에 북선 유격대선

(동경 9월18일발, 공동) 18일의 서울방송에의하면, 17일오후 한국서해안의 완도군해에 북조선 무장유격대선이 나타나, 한국경찰의 경비정을 습격하고, 침몰시켰다. 이습격에서 경비정에 타고있던 경관 3명이 사망, 또 부근에있는 한국어선에도 발포하고, 어선원 3명이 사망하였다.

징병수 삭감

(워싱턴 9월17일발, 에이피) 레아드국방장관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비에트남신규첩병제회과 미병력의 2만명삭감계획의 결과로서 급후 수개월간의 징병인원은 감소된다고 시사하였다. 동장관은 19일 선발징병국에 변경예정을 전하는동시에 국회에대해서 징병제도에의한 불평등을 제외하는 개정법안심의를 요구한다고한다. 동장관은 징병각감의 예측에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였는데, 발언의 배후에는 삭감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알수가있었다.

남비에트남 부서의 제 2차 철퇴 계획 12월 중순까지에 3만 5천명 이상 닉슨 대통령이 10차일에 발표

(와싱튼 9월 16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6일, 남비에트남주류미군의 제 2차 철병 계획을 발표, 새로 적어도 3만 5천명을 12월 15일까지에 철퇴시킬것을 명백히하였다. 백아관측에의하면 3만 5천명의 약반수는 전후부대라고하며, 또 제 2차 철병수는 최후에는 3만 6천 내지 3만 7천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7월부터 8월 말까지에 걸쳐서 행하여진 2만 5천명의 제 1차 철퇴는 이미 완료되고있으며, 오늘 발표된 제 2차 분과함하여 12월 15일까지에 철병되는 병원수는 6만 명이 되는것이다. 닉슨대통령은 전에, 미군의 철거병력은 금년 말까지에 10만 명 이상으로 하고싶다고 희망을 말하였는데, 지금 이것은 달성 되지 않을 모양이다. 또 남비에트남의 국민. 가오.키 부대통령은 미군의 제 2차 철퇴를 4만 5천 명으로 보았는데, 오늘 닉슨대통령이 발표한 실제 수자는 이것보다 적었다. 파리로부터의 보도에의하면, 북비에트남의 파리 화평 회담 대표단은, 닉슨대통령의 제 2차 철퇴 계획 발표에 대해서 큰평을 피하였다. 동대표단 대변인은 미국과 단.외국 군대는 남비에트남으로부터 무조건 전철퇴하여야 한다고 하는 북비에트남의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교원의 증급 요구운동으로 라성 학교 수업 중지

(라성 9월 18일 밤, 에이피) 라성 시내의 학교 교사들은 18일 증급 요구지지의 1일 항의 행진을 위해 집합 하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키 때문에, 시내의 각 학교에서는 오늘의 수업을 취소하였다. 학교의 대변인에의하면, 라성의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 9시경에는 약 40%의 교원이 결석하고있었다. 또 각 학교에서, 교원의 결석이 만혼 경우에는 교장이 수업 중지의 권한을 가지고있다.

켄네디 자동차 사고 치사 사건으로 심문

(펜실바니아주 윌크스발 9월 18일 밤, 에이피) 켄네디 상원의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에드먼드. 디니시 지방검사는 18일 "코페르양의 사망 후 시체의 코와 입에 약간의 피가잇섯으며, 의복에는 피자욱으로 보이는 자욱이잇섯다" 라고 새로운 사실을 들어, 유체해부를 신청, 무관군민사재판소의 푸로민스키판사는 새로 심문을 인가하였다. 심문은 29일 오전 10부터 거행된다.

하와이섬 산림증에서 독개스 시험

하와이주내에서 독개스 실험을 한것을 여러번 부정하고잇든 군부는 16일 팻시.링크 하와이섬출국회하원의원의 서한에서, 1966년 6월과 1967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하와이섬. 와이아헤아 보호림지대에서 비.지 와 지.비 라고 명칭된 맹독의 신경독개스의 시험을 한것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전기기간중 여러차례에 걸쳐서 시험에 쓴 독개스는 작년 유타주에서 6400두의 양을 독사시켜서 문제가된 비.엑스라고 불리우는 독개스 정도도 맹렬한것은 아니나, 지.비 개스는 제 2차대전중 독일군이 개발한 맹독개스의 치사개스, 비.지는 인간의 신경, 두뇌를 해치는 위험한 독개스이다. 양종의 개스가 다 코드로 유독성의것으로, 특히 지.비는 방사선후 24 시간도 주변의 공기를 오염하고, 그 시간중에 그의 대는것은 다 독사하는 위험성의 개스라고 한다.

